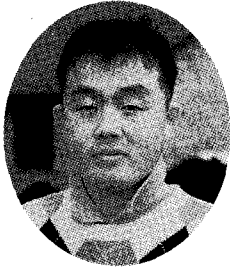


## 목장전체의 두당 연평균 산유량이 10,000kg 이상



유태상 / 들봄목장  
경기 김포군 월곶면 고막리 220

우리 들봄목장은 낙농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업농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낙농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목장이나 시설투자를 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구하기 힘든 목장, 또는 적은 투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낙농을 하는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목장 전체의 두당 연평균 산유량이 우리 들봄목장에서는 10,000kg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유량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들에게 소의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목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들봄목장은 93년 4월 분유떼기 6두, 연말에 초유떼기 14두를 입식시켜 낙농을 시작하였고 95년 9월 첫착유를 시작으로 매년 착유우와 평균유량을 늘려 왔으며 현재는 경산우 19두(착유 17두), 초임우 14두, 육성우 6두, 송아지 3두로 총 42두를 사육하고 있다.

착유우 17두에서 1일 610kg을 납유하고 있고 두당 평균 산유량이 38kg, 유지방 4.1,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등급 A를 나타내고 있어 원유대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물론 착유두수가 적어 납유량이

다른 목장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두당 평균 산유량과 유질을 높여 목장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 있는 목장이라고 본다.

지난 98년도에는 두당 연평균 산유량 부문에서 전국 1위 소(예쁜이)를 보유하는 목장의 영예도 얻게 되었다.

들봄목장의 두당 평균유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6년:28.1kg이었던 것이 97년:30.7kg, 98년:34.5kg, 99년 2월 37.6kg으로의 매년 평균 2~3kg씩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소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목장에서는 다음사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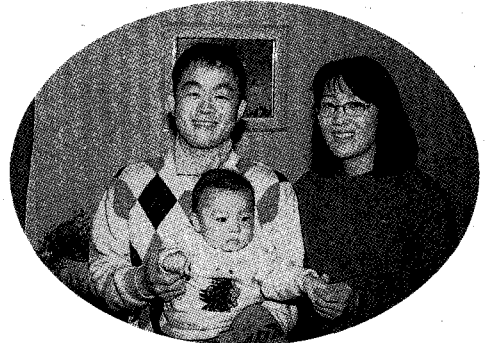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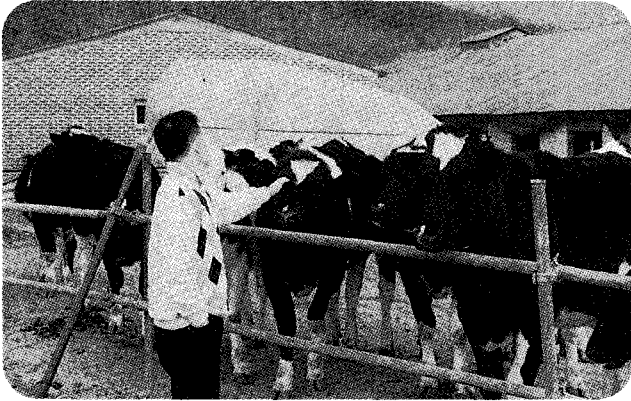
1. 착유우의 산유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육성우 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소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주고 있다.

3. 목장에서 소를 위해 해야할 일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다.
4. 소를 항상 깨끗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준다.
5. 소에게서 받은 이익만큼을 아낌없이 소에게 돌려준다.

우리목장의 소들은 왜 다른 목장의 소들처럼 많은 우유를 생산하지 못할까? 고민하기 전에 소에게 좋은 먹이를 잘 먹이고, 소들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고, 소들의 젖은 일정한 시간에 정확히 잘 짜주다 보니 목장의 성적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목장의 소들은 제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브(크리스마스 이브 날 태어났다고 해서), 가람이, 바다, 보물이 보배, 달림이, 흰눈이, 사랑이, 고순이, 나이스, 해피, 멧쟁이 등등 이름을 붙여 주고 있는데 소들이 자꾸 늘다보니 이



름 붙이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계속 붙여 주고 있다. 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예배해 주니까 소들도 좋아한다.

목장을 하면서 개량에 관련된 사항은 삼마목장, 사양관리는 선정목장, 전반적인 목장관리는 입지목장에서 조언을 받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목장만들기(연보람목장, 무쏘목장, 황솔목장)를 구성하여 같은 30대의 낙농가로서 정보교환도 하고 조사료 생산이나 공동작업이 필요한 일들도 같이 해주는 등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다.

낙농가들도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목장경영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며 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한예로 TMR이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시작했다가 경비가 부담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하려고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확실하고도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 초임만삭우를 200만원씩 주고

사을 생각은 하면서 왜 육성우에는 그만큼을 투자하려 하지 않는가. 확실한 방법은 육성우에 투자하는 것이다.

육성초기에는 배합사료를 적게 주고 비트펄프, 알팔파큐브, 건초 등의 양질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 주고 중소이후부터는 버뮤다, 톨페스큐 등의 짚을 충분히 급여하면서 농후사료는 개체별 제한급여를 해 주고 있다.

특히 과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관리하였더니 아직까지 분만사고가 한 마리도 없었고 초산우의 연평균산유량은 8000kg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육성우 관리의 최대 목표는 과비 되지 않은 상태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 15개월령에 수정시켜서 24개월령에 분만하는데 있다.

우유를 많이 짜려고 한다면 육성우 사양관리에 투자되는 비용을 아끼지 말고 2년 동안만 육성우관리에 투자하면 목장의 성적은 몰라보게 향상될 것이다.

소에게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높은 사료를 충분히 급여해 줘도 그것을 다 먹고 소화해낼 능력이 부

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든봄목장에는 소들의 유량이 최고일 때 초산우는 30kg이상, 2산우는 40kg이상, 3산우는 50kg이 넘고 있으며 최고 65kg까지 짜는 소도 있다. 그렇다고 소들이 모두 개량이 잘되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들은 모두 어릴 때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들이다.

이들을 송아지 때부터 정성스럽게 직접 길러서 착유한 결과 위와 같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유량이 많은 목장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 최소한 육성우를 농후사료와 볏짚만으로 사육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목장의 유량을 높이려면 지금부터라도 육성우에 돈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착유우 30두 정도로 평균유량 35kg, 총사육두수 50두를 유지하면서 1톤정도의 원유를 납유하되 최소의 두수에 정예화 하다는 큰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목장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

〈연락처 : 0341-987-9248〉